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 간의 인과관계 검증

Confirming the causality among news media use, political discussion, and political knowledge



김민규, Min Gyu Kim, 신인영, In Young Shin, 권미홍, Mihong Kwon, 김주환, Joohan Kim,



요약 많은 선행연구들이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 간의 관계에 대해 규명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규명해 왔기에 정치 지식이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지식이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틀을 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4,096 명을 대상으로 한 2004년 미국 대선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 지식, 뉴스 미디어 이용, 그리고 정치 대화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가 시민들의 정치 지식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가 시민들의 정치 지식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적 틀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Many studies have established an association among news media use, political discussion, and political knowledge. Most of previous studies, however, utilized cross-sectional data. As a result, there is limited empirical evidence suggesting that political knowledge is causally affected on news media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nfirm the theoretical frame of causality, which posits that political knowledge is affected to news media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explored causal sequ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news media use, political discussion and political knowledge, using cross-lagged modeling. This study examined a set of longitudinal data from panel surveys of 4,096 U.S. citizens. The finding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ross-lag effect between news media use at one time (T1) and political knowledge at a subsequent time (T2). In addition, the path from political discussion at T1 to political knowledge at was significant.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is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assumption among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ers that causality is unidirectional, running from both news media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to political knowledge.



핵심어: *news media use, political discussion, political knowledge, cross-lagged modeling,*

"이 연구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과제번호: 32A-2010-1-B00280)의 일부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주저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과정 email: mgkim79@yonsei.ac.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 과정 email: kongse@yonsei.ac.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과정 email: mihong31@gmail.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email: jkim@yonsei.ac.kr



1. 서론

뉴스 미디어 이용이 시민들의 정치 지식을 향상 시킬까? 정치 대화가 시민들의 정치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논쟁을 이끄는 주제가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 간의 관계이다. 하버마스[1]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견 형성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정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은 정치 지식 획득 활동과 관계가 깊으며, 이러한 정치 지식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2]. 정치 지식에 대한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와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2단계 유통이론(two step flow theory)[3] 이후 다양한 이론을 통해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뉴스 미디어 이용[3-11]과 정치 대화[10,11]가 정치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해 오고 있다.

비록 선행연구들이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밝혀 오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 자료를 통해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자료를 통해 접근하였기에 정치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정치 지식 간의 선후 즉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종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중에서도 정치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정치 지식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정도만을 분석하였을 뿐,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가 인과관계인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를 분석한 연구를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4 아넨버근 선거 조사(2004 National Annenberg Election Survey, 2004 NAE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4 NAES는 미국 전역에서 81,42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선거 15주 전과 총 선거 8주 후에 두 번에 걸쳐 8,664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8,664명의 조사 대상자 중 본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에 대한 조사에 응한 4,09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뉴스 미디어 이용

뉴스 미디어 이용은 신문, 공중과 뉴스, 케이블 뉴스의 세 항목을 통해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는 “대선 기간 동안 신문(공중과 뉴스, 케이블 뉴스)을 통해 선거 보도에 대한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이며,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전혀 보지 않았다=1, 거의 매일 보았다=4)로 이루어져 있다. 각 시점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Cronbach's alpha: 시점1 = .721, 시점2 = .708).

2.2.2 정치 대화

일반적으로 정치 대화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간에 주고 일어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대화를 가족 및 친구와 직장 동료의 두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 혹은 친구(직장동료)와 대선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이며, 모든 문항은 8점 척도(전혀 하지 않았다=1, 매일 하였다=8)로 이루어져 있다. 각 시점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r : 시점1 = .517, 시점2 = .575).

2.2.3 정치 지식

정치 지식은 대선 후보자가 내세운 경제, 복지,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6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6개 질문에 대해 각 질문을 맞추면 1점 맞추지 못 하면 0점을 주는 방법을 통해 정치 대화는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2.2.4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1, 대학원 이상=9), 수입(1만 달러 이하=1, 15만 달러 이상=9), 인종, 정당지지, 정치 이념(매우 보수=1, 매우 진보=6)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3 통계분석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지연모형의 핵심은 시점 t 의 변수 x_t 가 시점 $t-1$ 의 변수 x_{t-1} 와 y_{t-1}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있다(Bollen & Curran, 2006).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it} = a_{yt} + \rho_{y|y,t-1} y_{i,t-1} + \rho_{y|x,t-1} x_{i,t-1} \quad (1)$$

$$x_{it} = a_{xt} + \rho_{x|y,t-1} y_{i,t-1} + \rho_{x|x,t-1} x_{i,t-1} \quad (2)$$

한편, 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성립하여야 한다. 종단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 측정된 개념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된 것인지 시간에 따라 변화된 개념을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각 시점에서 변수가 동일한 개념인지 검증하기 위해 동일 문항(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설정한 모형을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한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다면 이는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 연구결과

3.1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은 <그림 1>에 제시된 어떠한 제약(constrained)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모형1)과 잠재변수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a1, a2, b1)를 각 시점 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2)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즉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서 χ^2 차이검증($\Delta\chi^2$ test)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 역시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에 대한 최종 결과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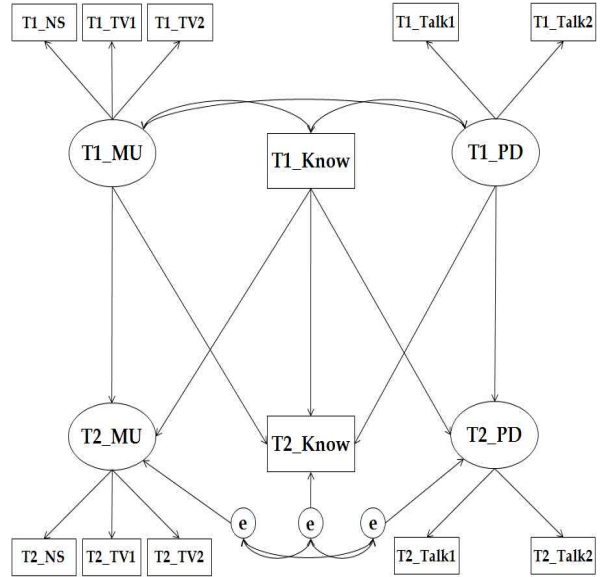
측정 동일성 가정에 따라 동일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2와 모형1의 적합도 차이($\Delta\chi^2(3, N = 4,096) = 2.451, p = .481, \Delta RMSEA = -.002$)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이를 통해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RMSEA
모형1	1093.360	43	.000	.077
모형2	1095.811	46	.000	.075

그림 1. 기본 가설 모형

3.2 연구모형 검증



간차 공분산 행렬과 측정동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한 최종 모형의 결과를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치 지식의 경우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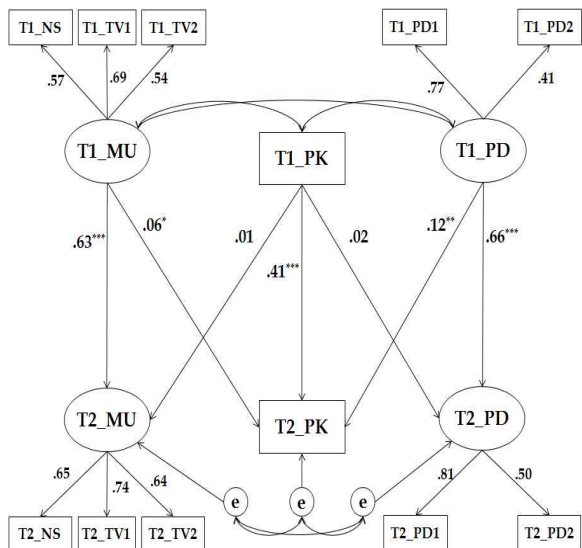


그림 2.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정치 지식의 최종 추정모형

5. 결론

다양한 연구들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즉,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안하였지만, 방법론적인 제약이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 그리고 정치 지식의 인과관계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주

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하려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차지연모형(cross-lagged model)에 종단자료를 적용하여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지식 중 어떤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히 밝혀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잔차 공분산 행렬과 측정 동일성 검증을 통해 기존 연구가 가지는 통계적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가 정치 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 지식의 경우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J.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ans.), MIT Press, Cambridge, USA 1989.
- [2] J. Zaller,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USA, 1992.
- [3] E. Katz and P.F. 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Free Press, Glencoe, USA, 1955.
- [4] M. Delli Caprini and S. Keeter,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USA, 1996.
- [5] W. P. Jr. Eveland and D. Scheufele, "Connecting news media use with gaps in knowledge and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7 No 3, the Political Communications divisions of APSA and the ICA, pp. 215-237, 2000.
- [6] W. P. Jr. Eveland, A. F. Hayes, D. V. Shah and N. Kwak,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political knowledge: A model-comparison approach using panel data.", *Political Communication* Vol. 22, No.4, the Political Communications divisions of APSA and the ICA, pp. 423-446, 2005.
- [7] P. Moy, & J. Gastil, "Predicting deliberative conversation: The impact of discussion networks, media use, and political cognitions.", *Political Communication*, Vol.23, No.4, the Political Communications divisions of APSA and the ICA, pp. 443-460, 2006.
- [8] T. E. Patterson,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Praeger, New York, USA, 1980.
- [9] J. P. Robinson, & D. K. Davis, "Television news and the informed public: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Journal of Communication*, ICA, Vol.40, No.3, pp. 106-119, 1990.
- [10] S. Burkhalter, J. Gastil, & T. Kelshaw, "A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oretical model of public deliberation in small face-to-face groups.", *Communication Theory* Vol 12, No.4, ICA, pp. 398-422, 2002.
- [11] J. S. Fishkin, & R. C. Luskin, *Bringing deliberation to the democratic dialogue: Scatter from the poll with a human face: The national issues convention experiment in political communication*, M. McCombs & A. Reynolds Eds, Erlbaum, pp.3-38, 1999.
- [11] K. A. Bollen and P. J. Curran,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hn Wiley & Sons, Hoboken, USA, 2006.